

龜溪書院골이다。書院 못미쳐 白山골이 右側으로 있는데 이곳에도 支石墓가 一基 있다。다시 되돌아나와 左側길을 擇하여 東北進할라치면 斗良貯水池가 左側으로 보이는데 이 곳의 水門 옆에 碑가 서 있는데 이 碑 地點이 바로 三國時代 古墳으로서 靑銅劍과 勾玉목거리 등이 發見된 것을 日本人監督이 갖고갔다고 當時 目擊한 村老가 이야기해준다。이곳에서 좀더 달리면 『관음마을』에 다다른다。이곳 西北쪽 傾斜진 받두렁에 보면 民墓 옆에 支石墓 一基가 보인다。

다시 泗川邑에서 根洞面事務所 앞을 지나 昆陽쪽으로 가노라던 上塔中塔 下塔하는 마을 앞을 지나는데 이 골짜구니 절터 近方에서 石劍과 土器가 採集된 바 있고 河東郡 辰橋線을 달리 昆陽面에 이르른다。이곳에서 河東辰橋線을 버리고 西浦線을 擇해 四岫를 달리면 面所在地가 나오 고 이곳에서 東進하면 六七年 檀大에서 發掘한 貝塚이 나오고 그 인근에 五個處의 貝塚이 있고 東쪽 海岸 自惠里 九浪里 西쪽 長橋를 바라보는 金津里 一帶 海岸線에 槐木의 化石群이 출몰하다。그리고 海中 多坪里 附近에는 百坪에 가까운 貝塚이 있다고 傳하나 踏査를 못했다。이곳에 羅列된 支石墓만 해도 七十九基에 達하니 하루 速히 어느 學術團體에 依해서 調査가 이루어져서 報告書라도 남겨야지 점점 허무러져 가고 있 으니 안타깝기만 하다。

忠南 散逸文化財

— 聖住寺金屬佛・普願寺石塔金屬相輪・伽倻寺石塔 其他 —

李 殷 昌

一、聖住寺金屬佛像

忠清南道保寧郡嶺山面聖住里에 聖住寺址가 있으니 이는 新羅末 無梁大師가 創立한 禪宗九山門의 하나인 聖住山門으로 많은 石造遺物①이 남아 있다。이 聖住寺址에 對하여는 學者間에 論及된 바가 많고 筆者도 數

次에 걸쳐 寺址를 調査하여 中門址②・金堂址③・逸名碑의 龜趺④와 螭首等에 對하여는 本誌에 紹介한 바도 있다。그런데 調査時에 金堂에 金屬佛像이 있었다는 事實을 알게 되었다。이 佛像을 目擊하였다는 寺址의 部落에 居住하는 李秉鎬老人은 말하기를、

「韓日合併무렵 一進會에 關係하던 日人이 와서 솔을 만들기를 위하여 鴻山 三千里 솔밭에 運搬하여 갔는데 그 佛像은 座臺위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그 크기는 成人이 佛像 무릎위에 서서 겨우 귀를 손으로 만질 정도이었으며 쇠부처(鐵佛)로 생각되며 훌륭하였다」

고 하였다。이것으로 ①聖住寺 金堂址에는 韓末日帝初까지 金屬佛像이 있었던 것이 確實하고 ②鴻山 二千里 솔밭 運搬云云은 거짓이고 日人에 依하여 流出된 것으로 推測되며 ③羅末麗初에는 鐵佛鑄造例가 많았으니 或鐵佛이 있는지도 모르며 ④크기는 確實치 못하나 相當히 큰 佛像이었던 모양이다。特히 寺址調査時에 金堂址에서 石造蓮花座臺破片을 調査할 수 있었으니 이에 石造座臺上에 金屬佛像이 安置되었음을 알 수 있다。그리고 一九六一年 八月 二十三日에 上述한 龜趺와 螭首를 扶餘博物館에 運搬할 때 寺址에서 逸名碑片⑤ 三個가 나왔는데 碑片 其一에 助成功德(二〇) 檀園題爲月麟(三) 租稻充入鑄像工價(魏斯伊) 文紫磨金色臨寶座以益光之堂租稻已至於寺(困) 宜和夫人是允與伊(四) 溥溪高峯尋曰年(四) 月(四)

라 하는 記銘을 볼 수 있다。이와 같이 判讀할 수 있는 碑銘中에서 「……租稻充入鑄像工價」云云한 「鑄像」은 이 聖住寺 金堂金屬佛像을 말하는 것으로 推定되며 그리고 「……金色臨寶座以益光云云」한 것은 金堂金屬佛像의 燦爛한 모습을 말한 것 같이 생각된다。既知의 事實이지만 이 逸名碑銘은 新羅末의 것이니 金堂鑄像이 이 碑銘과 關聯되는 것으로 보고 그 鑄造年代는 新羅末이라 하겠다。

二、普願寺 五層石塔 金屬相輪

忠清南道瑞山郡雲山面龍賢里에 普願寺址가 있으니 이는 高麗初에 法印國師가 創立한 印刹이었다。亦是 많은 石造遺物이 現存하고 일찍이 學者들의 關心이 集中된 일도 있다。筆者는 이 寺址를 調査報告⑥한

바 있는데 調査時 寺址部落到 居住하는 某氏老人은 金堂金屬佛像의 서
을 移置事實⑦을 말하면서 五層石塔의 金屬相輪의 流出經緯도 말해 주었
다.

「距今約五十年前에 日人들이 와서 塔頂 寶物을 喝取해 간 일이 있는
데 當時의 일이 記憶되는 바는 그들이 가져간 寶物은 金色이 燦爛한 등
근 寶物이었다」고 한다. 이것으로 推測되는 바는 普願寺五層石塔은 金
銅相輪이었을 것이고 그것이 現存하는 鐵製擦竿에 裝飾되었던 것으로
既往의 相輪모습이 注目되는 바다. 普願寺五層石塔은 均衡이 잡힌 建築
美가 훌륭하거나와 또한 塔體의 彫像이 秀麗함도 絶讚⑧을 받고 있는데
더구나 塔頂의 金屬相輪은 輝煌燦爛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곧 松林
寺五層塔⑨金屬相輪・月精寺八角九層石塔⑩金屬相輪・法住寺五層木塔
(捌相殿)⑪金屬相輪等 類例에 添加되는 一例라 하겠다. 그리고 저 感恩
寺址三層石塔의 鐵製擦竿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몇몇 類例의 既往의 相
輪은 그 어떠한 것인가가 注目되는 바다.

三、伽倻寺 石塔

忠清南道禮山郡德山面上伽里 伽倻山谷에 伽倻寺⑫가 있다. 伽倻寺는
그 創建年代는 未詳하나 寺址와 遺物을 通하여 볼 때 高麗大刹로 推定
된다. 一九六三年 여름철에 此寺址를 調査한 바 있어 여러 石造物中 龜
跌와 石燈火舍石等⑬에 對하여는 本誌에 紹介한 바 있는데 이 伽倻寺는
李氏朝鮮末葉에 興宣大君이 寺刹을 불사르게 하고 父親 南延君 墓地로
使用하고 그 報答의 뜻으로 近處에 報德寺⑭를 建立하였다. 伽倻寺의
灰盡廢寺時에 伽倻寺石塔이 없어졌으니 이 石塔에 對하여 보기로 한다.
梅泉野錄에 依하면

「南延君球有四子、興宣其季也、初南延卒、興宣年方十八、隨地師、至德
山大德寺、師指一古塔曰、彼大吉壤、貴不可言、興宣卽返、盡賣其產、
得錢二萬兩、携其半、賂寺之任持僧、使火之、於是寺盡焚、興宣奉喪
至、掃灰而停焉……略……大院君嘗語李建昌、以葬時事曰、塔既折中
有二白磁、團茶二餅、舍利珠三枚、珠如小豆、甚明瑩、沉水以香之、青
氣貫水、如縷烟云」

하였다. 이 記錄에 「師指一古塔」이 곧 伽倻寺石塔으로 이에 對하여 又
玄 高裕燮先生은 「梵宇攷에 德山에 伽倻寺가 있어 鐵尖의 石塔이 있고
그 四面에 石龕이 있어 各 石製佛을 安置하다. 制甚히 奇巧하여 俗稱
金塔⑯이라고 하였다」고 論述하였는데 이 石塔도 普願寺五層石塔과 같
이 燦爛한 金銅製相輪部가 있었으나 않은가 한다. 그리고 葬事時에는
이미 碎인 塔속에서 舍利藏置가 發見되었던 모양이다. 곧 舍利具로 白磁
二個、團茶二餅이 있고 舍利三粒이 있었는데 그 舍利珠는 마치 擘(小
豆)알만 하고 그 모양이 맑고 깨끗하여 물에 잠기면 靑氣가 물을 뚫고
縷烟과 같았다 한다. 이와 같이 伽倻寺石塔은 奇巧한 塔體、燦爛한 金
屬相輪、玲瓏한 舍利具等 注目되는 바로 이에 훌륭하였던 塔이었음이 짐
작되고 남음이 있다.

四、其 他

破壞 또는 流出로 散逸된 佛教遺物이 上述한 以外에도 많음으로 筆者
는 古蹟踏査에 依하여 알게 되었다. ① 일찌기 瑞山邑後、玉女峰 佛堂의
木像을 日人學者가 携歸한 事實⑰이 있었고 ② 또 一九一八年에는 洪城邑
五官里 傳廣景寺址 出土 金銅小像⑱ 二軀가 流出된 事實이 있으며 ③ 그
리고 一九六五年에 井邑郡 北面 伏興里 逸名寺址를 調査한 바 高約六
m餘의 큰 石塔⑲이 日人에 依하여 群山으로 流出되었다.

以上 記述한 바와 같이 流出、亡失、破壞로 散逸된 許多한 文化財中에
는 오히려 現存하는 것보다 훨씬 훌륭한 것들이 많다. 그리하여 이들 散
逸文化財를 찾아 考察함도 無益한 일은 아니고 보다 研究問題를 解決하
는 重要한 方途의 하나가 아닌가 하고 添言하는 바다.

註① 拙稿「保寧聖住寺址調査報告」(高大亞細亞問題研究所刊 亞細亞研
究第二十八號)參照

② 拙稿「保寧聖住寺址의 中門址」(考古美術第二卷第五號)參照

③ 拙稿「保寧聖住寺址의 金堂址」(考古美術第三卷第四號)參照

④ 拙稿「保寧聖住寺址의 逸名塔碑」(考古美術第二卷第九號)參照

⑤ 1. 朴日薰「保寧聖住寺址逸名碑片」(考古美術第三卷第一〇號)

2. 考古美術同人會編 金石遺文「碑銘十三 保寧聖住寺逸名碑」

3. 拙稿「保寧聖住寺址調査報告——塔碑三基——」(高大亞細亞問

題研究所刊 亞細亞研究第三十八號)

⑥ 拙稿「瑞山普願寺址의 調査」(考古美術第七卷第四號)

⑦ 瑞山郡誌「古物」條 參照

⑧ 1. 杉山信三著 朝鮮의 石塔「普願寺址五層石塔」條 參照

2. 國寶圖錄第五輯「九五 普願寺址五層石塔」條 參照

⑨ 金載元「松林寺塔」(震壇學報第二十九・三十合併號)

⑩ 國寶圖錄第五輯「一〇六 月精寺八角九層石塔」條 參照

⑪ 高裕燮「報恩法住寺木造五層塔捌相殿」(東方學志二編)

⑫ 東國輿地勝覽에「伽耶寺」라 하였고 梅泉野錄에는「大德寺」라 하

였으나 元來의 寺名은「伽耶寺」다.

⑬ 拙稿「德山伽耶寺址의 石遺物」(考古美術第四卷第七號)

⑭ 梅泉野錄「甲子後, 以國力規寺於大德之陰, 名報德, 而土木金碧, 極

其壯麗, 賜與土田 貨寶甚厚」

⑮ 高裕燮「朝鮮塔婆의 研究」(朝鮮의 工藝的諸塔)條 參照

⑯ 瑞山郡誌古物條「佛堂木像在郡廳後玉女峰上, 以瓦數十片設小屋,

屋內安置十數木像……略……年前考古學者鳥居龍藏博士, 爲備參考

品携歸一個云云」

⑰ 洪城郡誌古物條「洪城邑東, 約八町番中有廣景寺蹟, 約五百年以水

火滅亡……略……遺址附近地主, 墾田作番之際, 金佛二體, 發掘於

瓦礎石交雜之中, 其高八寸, 移送于總督府云云」(拙稿「洪城五官

里寺址의 幢竿支柱와石佛座像——考古美術第六卷第一號 參照)

⑱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韓國塔婆目錄」等 參照

北漢山僧伽寺 石塔材

文 明 大

전부터 北漢山僧伽寺 境內에는 塔材가 흩어져 있어서 이것들의 原位

置와 다른 塔材의 所在가 궁금하였는데 지난해 一九六七年 六月 僧伽寺

踏査길에 現 藥師石窟과 磨崖石窟사이에서 이들 塔材의 基壇部를 확인

할 수 있었다. 磨崖窟 못미처 岩石 아랫便의 평탄한 臺地의 土砂에 묻

혀 있었는데 五月에 우연히 發見하여 그 全部를 들어 내었다고 했다.

어떻게 이 場所에 一基의 塔만이 位置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다.

새로 노출된 部分은 地臺石에서 上臺甲石까지의 基壇部 全體다. 地臺

石은 四枚의 板石으로 되었고 下臺中石은 各面に 四個씩의 眼象을 마련

하고 있다. 眼象은 一〇葉으로 幅이 三四・三cm이다. 下臺甲石위의 中

石받침은 三段으로 中段은 물렁이다. 그런데 上臺中石은 全高가 三一cm

로 一般形보다 훨씬 낮아지고 있다. 그것도 撐石과 隅石이 있는 中石과

이것들이 없이 一段높게 刻出한 받침形의 二段으로 되어 特異한 手法을

보여준다. 上臺甲石은 一枚의 板石으로 되었고 屋身피임은 中石받침과

마찬가지의 三段이다.

이 외에 이 塔의 塔身과 屋蓋들이 境內에 흩어져 있다. 第一塔身으로

推定되는 것이 石窟과 法堂 사이의 길가에 놓여있다. 高五六cm 幅九三

cm인데 隅柱까지 마련하고 있다. 이와 함께 三層屋蓋石이라 생각되는 것

(高三二cm, 幅一〇八cm)이 있는데 屋石받침은 三段이다. 또 하나의 塔身

이 현재 水道옆에 놓여 있는데 흙을 파서 철구로 사용하고 있다. (高가

五一・五cm 幅이 六四cm 暈徑이 四六cm 深三五cm) 法供養의 塔이 僧供

養으로 變해진 심히 逆說的인 現象이다.

基壇部의 特異性 특히 上, 下 中石에 나타난 眼象과 현저한 底高等은

麗初의 塔에 나타나는 樣式인데 三段의 屋石받침 手法에서도 보이고 있

는 것으로 注目되는 점이다.

報 告

◎ 新羅五岳智異山(南岳)地區 第四次調査

智異山地區 第四次調査가 年初인 지난 一月三日부터 十二일까지十日